이어진씨 '평화음악실' 등 전문가 진행 음악프로그램 인기

클래식, 알고 들으면 더 즐겁다

광주평화방송의 '평화음악실'은 클래식을 전공한 이어진(광주평화방송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사진 왼쪽)씨, 최철씨가 진행를 맡고 있다.

양새미씨 '클래식 산책'·안철씨 '내 마음의 노래' 등
다양한 곡 친절한 해설로 청취자들 마음 사로잡아

올 가을엔 유난히 음악 영화가 많이 찾아왔다. 특히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이 중요 모티프로 등장하고 영화 내내 베토벤의 음악이 흐르는 '카핑 베토벤'을 보고 있으면 클래식의 매력을 새삼 느끼게 된다.

조금은 멀게 느껴지는 클래식과 친해지기 위해 CD를 듣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들에게 찬찬히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일. 이럴 땐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에 귀를 기울여 보자.

광주평화방송의 '평화음악실'(매일 오전 10~11시)은 클래식을 전공한 이어진(36·광주평화방송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전남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시립합창단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이 씨는 직접 방송 원고를 쓰고 선곡을 하며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 함께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가장 정보가 빠르고, 이야기거리도 풍부한데다 무엇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클래식 음악을 '쉽게' 설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매주 월요일에는 올해로 탄생 400주년을 맞은 오페라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400년, 오페라의 역사 속으로'가 청취자들을 찾아간다.

이탈리아에서 오페라를 전공한 성악가 최 철(36)씨가 출연하는 이 코너에서는 매회 오페라 한 작품을 선정, 함께 음악을 듣고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라 보엠' 등 유명 오페라는 물론이고,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도 소개한다.

최 철씨는 "클래식 음악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오페라라는 장르를 참 어려워 하는 것 같아 청취자들이 오페라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매주 토요일, 신동일(남부대) 교수가 참여하는 '주말의 소리 공감'에서는 국악 등 우리 음악이 서양음악과 접목된 작품을 소개하고 있으며 '음악 카페에서 문학 읽기'는 음악으로 만들어진 소설과 희곡을 만나보는 시간이다.

호남예술제 출신으로 16년만에 귀국, 현재 전남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32)씨는 CBS 광주방송의 '클래식 산책'(일요일 낮 12시)을 맡고 있다.

양 씨 역시 직접 대본을 쓰고 선곡 작업을 진행한다.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한 곡들을 친절한 해설과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공연 실황을 들려주기도 한다. 10월에는 하이든의 '사계' 중 가을을 집중적으로 들려주고 있다.

KBS FM의 '내 마음의 노래'(월~금요일 오후 4시~5시)는 성악 전문 프로그램이다.

'목요일에 만나는 안 철의 테마여행'을 진행하는 안철(광주 금호고 교사)씨는 클래식 전공자는 아니지만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클래식 마니아로 매회 주제를 정해 오페라, 가곡 등 다양한 성악곡을 들려주고 있다.

또 매주 금요일에는 공연에 참여했던 전문 음악인이 직접 출연해 해설을 해주는 공연실황 중계 코너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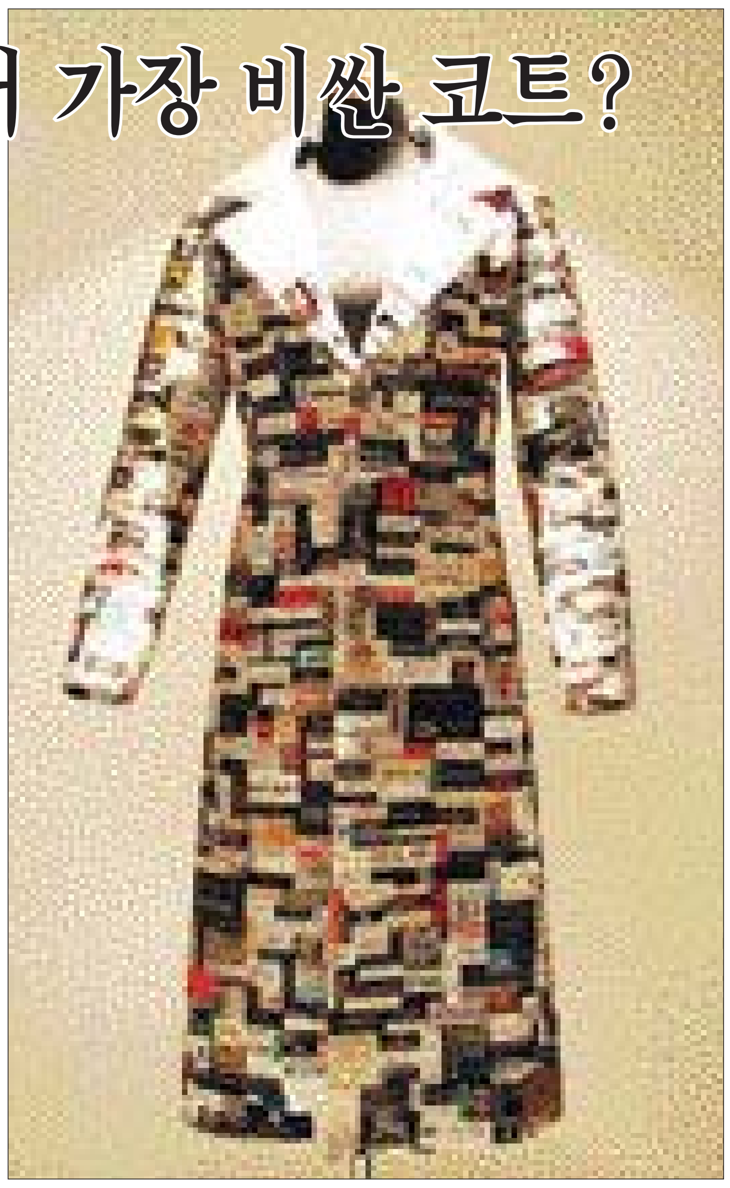
그밖에 클래식 장수 프로인 광주MBC의 '골든 디스크 이창수입니다'(매일 오전 11~12시) 역시 최근 개편과 함께 전문가를 초대하는 코너를 구상중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오늘의 작품

실케 와로 작 '폴크스웨어 코트 유로 759.987,20'

세상에서 가장 비싼 코트?



대량생산으로 인한 과잉공급은 물론 상품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색다른 논쟁을 불러온 작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코트'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폴크스웨어…'는 모두 7천531개의 의류 브랜드 라벨을 이용해 만들었다.

작품 제작에 사용된 라벨을 얻기 위해 구입한 옷의 가격을 합산할 경우 무려 75만9천987유로 20센트(약 9억5천 만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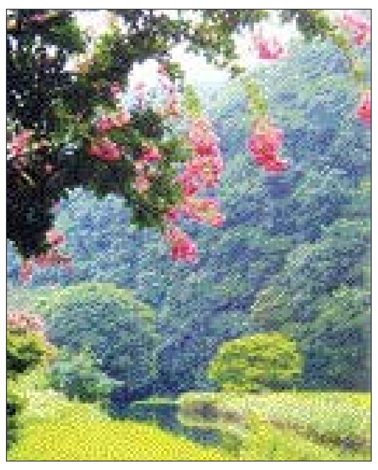
실케 와로는 작품을 통해 안티브랜드를 주장하는 것에서 벗어나 상품명이 개인의 정체성과 개성을 나타낸다고 믿는 현대인들의 모순된 소비인식을 비판하고 있다.

독일 출신인 그는 자신의 브랜드인 '폴크스웨어(Volksware)'를 통해 상품과 인간의 교감을 내세운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개인들이 직접 만든 옷에 '폴크스웨어' 라벨을 부착해 줌으로써 의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등 대중과 소통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일 아름다운 산하

한일자연사진가회 교류전
19~25일 광주시청 시민홀


진춘호 작 '전원'

한국과 일본의 자연을 앵글에 담아온 사진가들의 교류전이 광주에서 열린다.

한일자연사진가회(회장 진춘호)가 주최하는 제25회 한일 사진 문화교류전이 19~25일까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다.

한·일 작가들은 자국의 산과 강 등 수려한 자연풍광과 개발로 사라져가는 산하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양숙자씨는 눈 덮힌 덕유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덕유산 설경', 김용복씨는 해안을 스케치한 '주상절리'를 선보인다.

참여작가는 백학기 고해주 구영웅 김복용 노종선 박인숙 박정수 서현정 조영국씨 등이다. 문의 011-627-6325.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국제영화제 11월29일 개최

광주국제영화제가 올해도 불씨를 살려 나간다.

제7회 광주국제영화제가 오는 11월 29일부터 5일간 광주시 동구 충장로 메가박스 광주점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광주국제영화제의 대표섹션인 '영 시네마'와 '월드 시네마' 섹션은 그대로 유지되며 '시민영화 광장' 등도 개최된다.

올해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5·18 관련 장편과 단편 영화를 한 자리에 모은 것. '부활의 노래', '화려한 휴가' 등 장편 영화와 5·18을 소재로 한 단편영화 등 모두 10편을 상영할 계획이다.

또 '인권, 평화'의 의미를 확장해 여러모로 광주와 비견되는 미얀마를 소재로 한 영화들도 물색중이다.

지난 2001년 첫 행사를 치렀던 광주국제영화제는 지난해 국비와 시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렸다가 민간 차원에서 행사를 개최했었다.

올해는 허리띠를 더 졸라매 모두 1억원 규모로 행사를 진행할 예정. 현재 프로그래머 유명철 씨가 '월드 베스트'와 '영 시네마' 작품 선정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황용순씨가 일본 작품 3편의 섭외를 마친 상태다.

주최측은 올해까지 민간에서 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 중급영화제 정도로 키워나갈 복안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우정·화합· 전진' 음악 향연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 19일 개막 … 21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등서

2007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가 '우정, 화합 그리고 전진'을 주제로 19~21일 광주 문예회관 대극장 등에서 열린다.

광주 출신으로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정율성은 항일운동가이자 중국의 3대 음악가 중 한명으로 추앙받는 인물. 특히 올해부터는 정율성의 작품만 연주하는 단조로운 형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악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무대로 꾸며진다.

19일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개막공연에서는 광주시립국극단의 모듬북 공연과 가야금 연주자 김미진, 중국의 민악단, 광주로고스챔버가 함께 무대에 오르며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국악관현악단과 오정해의 협연 무대가 마련된다.

20일 대극장에서 열리는 둘쨌날 공연에서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첸잉화의 지휘로 '망부운 서곡', '아, 아름다운 풍경이여' '연안송' 등 정율성의 대표곡을 연주하며 백혜선씨가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황제'를 협연한다.

또 중국의 소프라노 짱티엔푸 등 중국 성악가들이 출연하며 임웅균, 김백호, 노연선씨와 광주시립합창단, 전주시립합창단이 '합창과 관현악을 위한 동해어부' 등을 선보인다.

같은날 소극장에서는 음악평론가 장일범씨의 사회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고전음악에서 재즈까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회가 열린다. 오르간 연주자 린리 칭, 일본 피아니스트 히데오 고보리, 아카펠라 팀 'I SOLIST', 2006 광주국제성악콩쿠르 입상자 조정기씨와 14회 임방울국악제 대통령상 수상자 박춘맹씨 등이 무대에 오른다.

마지막 날인 21일은 중국과 광주의 아마추어합창단 페스티벌로 꾸며진다. 중국의 목인합창단, 북경음해합창단, 제4회 합창올림픽에서 금상을 수상한 광주평화방송 소년소녀합창단, 파파합창단, 능주초율성어린이합창단 등이 출연한다.

티켓은 인터넷(www.gimf.org)을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62-511-12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약국사거리 ♡예매1544-0600

M관	바르게살자(15세) 최고급관
2관	궁 녀(18세)
3관	러시아워3(15세)/내니다이어리(12세)
4관	행 복(15세)
5관	레지던트이블3(18세)
6관	비커밍제인(12세)/브레이브원(15세)
7관	어깨너머의 연인(18세)
8관	
9관	카핑 베토벤(12세)/바르게살자(15세)

5월 1일부터 메가티즌 데이 할인이 종료됐습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엔터 시네마
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빛고을·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연인과 가족의 오붓한 문화공간
내가 엔터시네마를 찾는 이유…
저의 취미는 말하자면 남들 다 말하는 것과 같이 영화감상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제 맛이라고 여기는 저의 생활수칙 때문에 영화관을 찾게 되지요. 그런데 집에서 가까운 주변 영화관에 안가고 광주 엔터시네마에 가는 이유가 영화자체에 완전 몰입을 할 수 있어서 입니다.
다른 영화관에 가 보았지만 사람들도 붐비고 시끄럽고 주위가 산만하게 되어 영화몰입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엔터시네마를 찾았을 때는 저의 불편한 점을 말끔이 해결해주었지요.
친절하게 대해주는 티켓창구 직원 덕분에 영화보는 기분이 한층 더 좋아졌답니다.
또한 엔터시네마 내부전체가 너무 깨끗해서 좋았구여.
이렇게 청각적 시각적 감성적으로 고루 3박자를 갖춘 엔터시네마가 있어서 저는 늘 영화를 보러 올때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 직장인 김현지
★주차장이 편한 극장 http://www.enter-cinema.co.kr★

황토사랑 영화사랑 • 예매:www.joycbc.com/ 1588-7941
콜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하남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하남점 (무역회관뒷편)

1관	행 복(15세)
2관	카핑 베토벤(12세)
3관	궁 녀(18세)
4관	궁 녀(18세)
5관	러시아워3(15세)/비커밍제인(15세)
6관	레지던트이블3(18세)
7관	사랑(15세) / 바르게 살자(15세)
8관	권순분여사 납치사건(15세) / 브레이브원(15세)
9관	어깨너머의 연인(18세)
10관	바르게 살자 (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1588-7941
콜롬버스 하남점(10개관) 절찬리 상영중
상담원연결 방법 →(1번 or 2번)→0번

색깔있는 영화산책 • www.cinus.co.kr/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1관	레지던트이블3(18세)
2관	행복(15세)/거침없이 쏴라! 슛뎀업(18세)
3관	궁 녀(18세)
4관	브레이브원(15세)/러시아워3(15세)
5관	비커밍제인(12세)/카핑베토벤(12세)
6관	어깨너머의 연인(18세)
7관	바르게 살자(15세)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녹차 사우나(오전5시~새벽1시)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 www.mc12.co.kr/ 1588-9101
무등극장
충장로 1가 ☎ 232-9106

1관	러시아워3(15세)
2관	사 랑(15세)
3관	궁 녀(18세)
4관	어깨너머의 연인 (18세)
5관	바르게 살자(15세)
6관	행 복(12세)
7관	카핑베토벤(12세)/브레이브원(12세)
8관	비커밍제인(12세)/브레이브원(12세)
9관	레지던트이블 3(15세)

* 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멤버스 회원만을 위한 전용창구 마련
• 전화예약 가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새로운 기쁨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제 일 시네마
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1관	궁 녀(18세)
2관	어깨너머의 연인(18세)
3관	행 복(15세)
4관	바르게 살자(15세)
5관	레지던트이블3(18세)
6관	러시아워3(15세)/브레이브원(15세)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